

재료부품

◆ 부품업계 “고맙다 3D TV”

올해 가격을 낮춘 보급형 3D TV 확대가 예상되면서 관련 부품 공급사들이 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나패스, 티엘아이, 에스앤에스텍, 에이스디지털 등 3D TV 관련 부품 공급사들은 TV 제조사들의 제조물량 확대 전략에 발맞춰 물량 확대를 준비하면서 관련 매출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주문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점진적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LCD 업황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부품 기업들 중 일부도 매출 부진을 겪은 바 있다. 올해는 TV 시장이 점차 되살아나면서 출고가를 200만~30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확 낮춘 보급형 3D TV가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부품 기업들도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1.4.3]

◆ 부품 자생력 높여 경쟁력 확고히 해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8일 ‘일본 대지진에 따른 3월 대일 수출입 영향분석’을 통해 3월 11일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 3월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세,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격한 교역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수입에 있어 반도체 장비가 전년 동월 대비 25.3% 감소했지만 주요 품목 수입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일본 대지진이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뜯어보면 쉽게 지나쳐갈 문제는 아니다. 자동차의 엔진부품, 반도체의 실리콘웨이퍼, TV의 기관유리 등 우리 주력산업 핵심부품들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공급 받는 비중이 높아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에 없다.

그렇기에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및 일본 부품소재기업 국내 유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산 부품소재 공급 차질이 전세계 제조업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내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일 혹은 한·중·일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최근 공장 가동을 재개한 일본의 핵심 부품 공급 기업으로부터 “한국 업체에는 무조건 공급 날짜를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1~3개월 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2·4분기 이후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로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 차원이다.

반도체 장비 등 일본의 주요 부품소재 업체들은 생산량 감소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글로벌 선두인 국내 기업들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업계 1·2위인 만큼 ‘바잉파워’를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로서는 중국·대만을 더욱 따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만 이 웃돈을 주고라도 핵심 부품 공급을 받으려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설도 나온다.

사실 부품소재 분야 국내 유치 및 고도화는 대일 무역역조만큼이나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를 출범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촉진을 꾀하고 있다.

또한 부품소재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등을 통해 해외수요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력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부품소재기업 인수합병(M&A)도 유도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국내 산업구조 대응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은 근본적인 시각에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으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통한 일본 기업 유치 등 전방위적인 접근을 통해 대일 의존도를 차근차근 줄여나가면 산업구